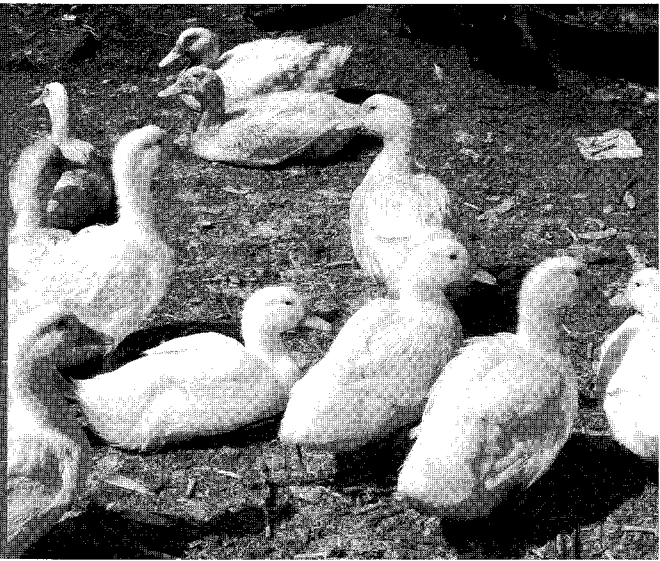


Cherry Valley develops
new high welfare duck rearing system
글 Richard Allison

체리밸리, 동물복지를 위한 새로운 오리사육법 개발!



체리밸리는 축사 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들을 사육 시 오리들에게 물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오리들이 자유롭게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한

문제로 남아있었으나 체리밸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최근 동물복지는 영국 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오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물길을 제공하는 것이 수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이는 깔짚을 축축하게 만드는 등 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왔다.

체리밸리의 농업기술관리팀장 브라이언씨는 “물이 오리사내 깔짚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축사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수도를 배수관 부분에 놓으려고 했으나 위생적 문제나 악취 등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이를 축사 바깥으로 설치하고 철망 및 지붕으로 둘러싸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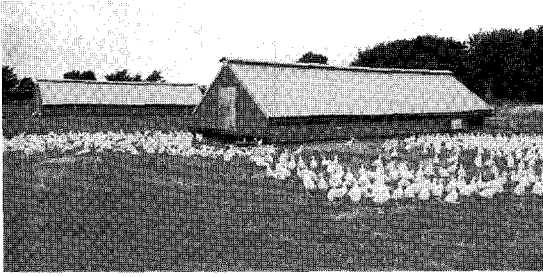
이 후 5년간의 연구로 체리밸리는 ‘신선한 농장(Farm

Fresh)’이라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브라이언씨는 “오리들은 질병 등의 걱정 없이 축사 외부의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누리며, 자유로이 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체리밸리의 베란다 시스템은 일정 치수에 맞춰 제작되어 어느 축사라도 이 베란다 모듈을 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리들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베란다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사 한 편에 마련되어 있는 베란다 공간으로 오리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도량을 제공토록 한 것이다.

브라이언씨는 “이 공간은 축사내 환경과 별개로 오리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오리들은 물에서 그루밍을 하고,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치며 유유히 헤엄을 칠 수도 있다. 침입자나 야생조류와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베란다를 매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축사 내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오리가 마시는 물과 사료 등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오리사내 사료급이기를 급수기와 일렬로 나란히 배치하고, 급수기 아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체리밸리의 베란다 시스템은 뉴어크(Newark)에 위치한 이반(Ivan)씨의 9개동의 육성오리사를 포함한 아홉 군데의 오리사에 설치되어 시범 운영 중이다.

이반씨의 농장 관리자 폴(Paul)씨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며, “오리들이 이 시설들을 열심히 이용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처음에 베란다 시스템에 대해 나는 100%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오리를 사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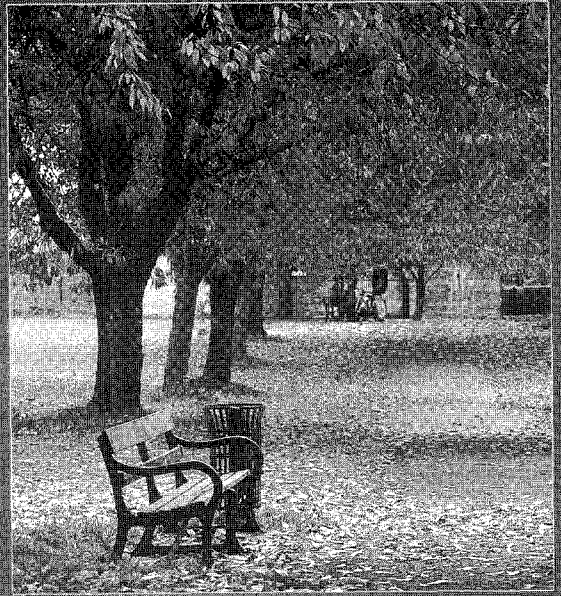
또한 베란다 시스템으로 통하는 통로가 오리사의 환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브라이언씨는 오리사 내의 깔짚이 건조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매일 깔짚을 깔면서 축사 내를 건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브라이언씨가 말했다.

“오리들은 깔짚 위에서 텅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는 덧붙여 설명했다.

브라이언씨는 “체리밸리에서 오리를 사육하는데 좋은 환경 제공,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백신 등 약품의 사용 없이 오리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체리밸리는 현재 Freedom Food(‘Freedom Food’란 영국동물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설된 부서로 산란계, 육계, 오리, 돼지 등에 관한 복지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이 규정을 준수한 제품에 Freedom Food 라벨을 발급하고 있다)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한다.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황경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 역시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줄 어떤 것들을,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을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보다 멋진 미래를 갖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그것을 즐길 시간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또 다시 이 삶을 번잡하게 만든다.

어쩌면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먼저 버려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갖고 싶다면
 포기하고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갖고 싶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듯이.

황경신 paper.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중에서